



종로 탑골공원 근처에서 점을 보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면 으레 한해의 신수를 점쳐 보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 기대를 하는 재미가 있다. 인간의 미래를 주술의 힘을 빌어 추리 또는 단정하고자 하는 占卜으로 음양원리를 활용하는데 이는 易經을 응용하여 음양오행이나 수리로 패를 만들고 해석하여 길흉을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행위가 시작된 것은 기록상 고구려시대. 유리왕 29년 矛川 위에서 검은 개구리가 떼지어 싸우다가 검은 개구리가 죽었는데 이를 두고 “흑은 북방의 색이니, 북부여가 파멸할 징조이다”라고 해석한 데서 음양오행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올해는 입시문제나 물가인상 등 여러가지 불안한 심리와 썰렁한 분위기들이 겹쳐 서점가의 역술도서 코너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다.

쉽게 풀어쓴 실용역술서 늘어나

易의 기본이 되는 음양의 원리에 기본을 두고 있다 해서 ‘역술도서’라 불리는 이들 도서가 서점가에 정식으로 입성한 지는 오래지 않다. 처음 독자들에게 선보이던 때와 달리 이들 도서는 내용이나 형식면에 있어 변화를 거듭한 흔적이 보인다. 주역에 근거해 사주풀이, 궁합, 풍수지리 등을 다루는 것은 예전과 다름이 없지만 독자들이 자신의 사주를 찾아 운세를 점치게 하는 실용역술서들도 많아졌다. 또한 주역과 서양의 점성술을 결합해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하는 책들까지 합세하고 있다.

지금껏 별반 달라진 게 없는 책도 있으나 이는 만세력에 근간한 이치를 풀어 쓰는 책들

이다. 예컨대, 「周易講解」(김석진, 대유) 「만세력」(한동수, 동반인) 「해설 토정비결」(김성근, 해냄) 「새시대를 위한 周易 상·하」(서정기 외, 글) 「사주팔자 삼백육십오일」(정용빈, 송원문화사) 「西株精說」(백영관, 명문당) 「쉽게 풀 역학」(김태준, 삼한출판사) 등이 그것이다. 주역의 원리 해설을 강조한 이들 도서는 내용에 있어 ‘응용’보다는 ‘해설’을 고수하고 있어 이론서 내지 교훈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周易에 근간을 두더라도 독특한 역법과 해석을 가미한 「인생 십이진법」(정다운, 밀알), 일반 만세력과는 다른 역법을 사용한 「天氣漏泄」(안중선, 고려문화사) 등은 89년에 출간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제성을 불러일으켜 여지껏 서점에서 독자들의 손을 타고 있다.

사주에 따른 궁합이나 성공적인 이사 등을 한 권의 책에서 전부 다루어 훑어보기식으로 넘어가던 예전과 달리 결혼운, 취업운, 출세운, 성공적인 이사 등 서로 다른 주제를 나누어 다룬 세분화 현상도 이즈음의 추세.

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실용역술서들에게는, 「팔자대로 산다」(김병석, 무궁화) 「한국인의 사주팔자」(김성진, 무궁화) 「알기쉬운 역점 길흉법」 상·하(관음출판사) 「백리길 여행으로 운명이 바뀐다」(배성현, 동반인) 「신들린 사주풀이」(류상채, 녹진) 「이야기 사주팔자」(정현우, 녹진) 「사주학의 활용법」(유래웅, 창원출판사) 「내가 보는 내 운수」(남궁 상, 역학사) 등이 있다. 대부분 만세력에 근거한 자신의 사주를 찾아내어 해당부분을 찾아보도록 돼 있는데 초·중·말년운세와 함께 적성과 진로문제, 출세운 등을 다루고 있다. 간혹 직

신년운수 점치는 역술서

최근들어 눈에 띄게 증가... 허술한 책들도 적잖아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미래를 궁금해 한다. 많은 역술서들이

“운세를 미리 알면, 다가오는 흥액은

파하고, 지나치는 행운은 따라가서

잡을 수 있다”고 한다.

주역을 쉽게 해설하거나

독특한 역법을 사용한 역술서들이

범람하는 즈음, 내용에 있어

길흉을 예견하는 단정적 문구는

일단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업관과 성격, 자녀의 입시문제와 진로 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결혼에 해당되는 궁합을 다룬 책엔 「한국궁합학 비결」(남궁상, 역학사) 「궁합과 인생」(정도명, 대유) 「결혼운명학」(윤명중, 동학사) 「진짜 궁합 가짜 궁합」(오상익, 삼한) 「인생과 궁합」(심원정, 교학사) 등이 있다.

風水는 중국에서 전래하여 삼국시대 이래 민간신앙으로 뿌리내린 것으로, 바람과 물을 비롯한 자연조건에 의존하는 신앙이다. 이러한 풍수지리와 易의 관계를 밝힌 책에는 「일터와 집·터」(김구, 포도원) 「터·상·하」(손석의, 답게) 「성공하는 집 실패하는 집」(송연미, 참샘) 등이 있다. 내용을 보면 주로 양택풍수로 계절과 방위, 시간과 위치의 역학관계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풍수와 易을 결합한 책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서양의 점성술도 운세읽기에 한몫

비단 역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서양의 점성술이나 현대 심리기법 등을 결합, 동서고금의 역술서도 적지 않다. 신세대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나를 점쳐본다」(정현숙 엮음, 정신세계사) 「94 당신의 운명시나리오」(장충한, 친구) 「스타의 삶에는 향기가 있다」(대학생컴퓨터동우회 엮음, 문학풍경) 등이 그것인데, 심리학자와 인성연구자들이 고안한 성격 테스트와 꿈 해석 등 심리기법을 이용하여 체질을 판별하고 건강도를 측정한다. 적성검사를 연상케 하는 「나를 점쳐본다」는 보기 좋게 꾸민 체크리스트와 도표, 그림으로 구성돼 항목별로 자신의 해당사항을 체크하다 보면 한

해의 운세와 사랑점, 직업관 등을 알게 된다. 「스타의 삶에는 향기가 있다」는 주역도 아니고 점성술도 아닌, 컴퓨터 점을 통해 특정한 연예인들의 운세를 짚어보는 책.

깔끔한 편집과 내용을 간결하게 기술한 이들 도서는 해당항목 체크와 통계내기 등 독자의 참여를 요구하거나 평소 호기심의 대상이던 사람들의 사주팔자나 운세를 통해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특징인데, 청소년과 같은 특정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과거와는 달리 이들 역술도서는 저자가 다양해짐에 따라 도서의 종수도 많이 늘어났으며 비교적 간략하고 쉬운 서술로 주역을 해설, 응용하고 있다. 이는 周易에 치중해서 어렵게 서술한 책보다는 역학의 원리를 응용하되 시대에 맞도록 쉽게 풀어쓰으로써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려는 출판사의 발빠른 기획이라 여겨진다.

주역은 “상황의 논리, 변화의 철학”

그러나 역술도서가 갖고있는 취약점 중의 하나로, 실생활에서 내용이 얼마만한 확률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활용범위는 상정하지 않고, 단정적 문구만을 남발하여 읽는 사람을 “기죽이느” 거친 내용의 책이 많다. 또한 “유·불·선·도 역학 및 저자백가 사상 두루 섭렵...” 등과 같은 저자들의 과장된 이력도의 심스러우며 같은 사주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전혀 상이한 것이 있어 어떤 사주가 진실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덧붙여, 여러 종수의 책이 정조를 겨냥해 쏟아지다 보니 책의 지질이나 활자가 거칠기 짝이 없어 한눈에 보기에도 날림책이란 것을 알 수 있는 것들도 적지 않다. 독자들은 책을 선택할 때 이러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앞날에 대한 예측은 극히 조심스러운 부분 이므로 이를 맹신하게 되면 미신으로 치닫기 쉽다. 흔히 주역을 말하기를 “상황의 논리, 변화의 철학”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이들 역술도서가 주는 길흉의 단정적 문구에 연연하여 위기감을 갖기보다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마음가짐의 소중함을 깨달아 주변 세계와의 융화를 도모하는 것이 좋다는 게 역술서 범람을 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배은희 기자